조원우 감독 "레임덕? 난 내 스타일대로 간다"

롯데 조원우 감독

롯데 2년 계약 마지막 시즌 각오는?

분위기 밝게 하고 젊은 선수들과 호흡
황재균 변수…있는 자원에 외인 주력
예비 FA 강민호·손아섭·최준석 기대

배수진은 불가피하다. 구원군은 오지 않을지 모른다. 2년 계약의 마지막 시즌을 앞두고 롯데 조원우 감독(45)을 둘러싼 환경은 결코 우호적이지 않다. 엄혹함 속에서도 조 감독은 의외로 밝다. 초연함마저 읽힌다. 조 감독은 반성의 토대 위에서 희망을 말하려고 애썼다.

-선수단 분위기는 어떤가?

"일본 오키나와 마무리훈련에서 최준석, 정훈, 김문호, 전준우, 박헌도 등 고참급들이 분위기 메이커를 잘 해줬다. 투수 파트에서도 손승락, 윤길혁, 노경은이 열심히 하니까 후배투수들도 잘 따라갔다. 수비는 새로 온 김민재 코치가 열정을 갖고 지도했다. 오승택, 김민수 등이 좋은 평가를 얻었다. 아시겠지만 롯데는 선수들 성향이 원체 착하다. 빡빡한 스케줄임에도 무탈하게 끝낼 수 있어 감독으로서 고맙다."

-훈련량이 늘었다고 경기력이 꼭 향상되진 않는 것 같다.

"수치상으로는 많이 개선됐는데 팀 성적이 나쁘다보니 부각이 잘 안된 것도 있다. 도루 2위(145개)였고, 수비 실책은 100개 이하(91개)였다."

-현재 전력 상, 내년시즌은 8위를 했던 2016년보다 나을 게 없어 보인다.

"(FA인) 황재균 문제가 크다. 외부 FA 영입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감독으로서 푸념할 수도 없다. 있는 자원으로 한다. 외국인선수가 가장 큰 포인트인데 시간 걸려도 신중하게 뽑겠다."

-롯데는 주전, 비주전 격차가 잘 메워지지 않는 듯하다.

"이름값, 학력, 지연 다 배제하고 실력 위주로 경쟁시켰다고 생각한다. 잘 하는 선수가 경기에 나가는 것이다. 경쟁심 유발은 감독의 일이다."

-내년시즌 긍정적인 요소도 있을까?

"(2016시즌) 젊은 선수들이 경험을 쌓았으니 더 좋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사실 2016년 외국인 야수는 활약이 전혀 없었고, 투수들도 부진했다. 외국인선수들이 성과를 낸다면 희망적이다. 강민호, 손아섭, 최준석이 예비 FA인 점도 기대한다."

-어쩌면 2017시즌 바로 레임덕이 올 수도 있다.

"롯데 감독을 맡고 대만에 마무리훈련을 갔다. 어떤 방향으로 팀을 이끌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냥 1년을 겪다보니 내 스타일대로 하는 것이 맞는 거 같다. 분위기 밝게 하고. 젊고 패기 있게 선수들과 같이 호흡하겠다."

-2017시즌은 시즌 초반부터 전력을 쏟을 것 같은데?

"감독은 1게임 1게임 다 압박 받는다. 압박 받는다고 더 개선되는 것은 아니다. 현실에 최선을 다할 뿐이다. 1경기 1경기 하다보면 144경기 가는 것이다."

-2016시즌은 롯데의 시즌 플랜에서 착오가 있었다는 지적도 있다.

"'승부처'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 지려는 감독이 어디 있겠나. 부득이한 상황이 생겼다. 선수가 아픈데 무리한 운영을 못 한다, 롯데는 (주전-비주전) 격차가 난다. (포수) 강민호를 144경기 전부 내보낼 수는 없다. 황재균, 문규현, 손아섭은 거의 전 경기를 돌렸다.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는데 군말 없이 해줘서 고맙다."

-예상을 깨고, 조 감독이 '색깔을 못 냈다'는 지적도 있다.

"인정한다. 성과가 났으면 무슨 색이라도 입혔겠지만…."

-감독 계약 마지막 시즌인데 성적과 육성을 다 잡아야 될 판이다.

"투수 이정민(37)은 40이 다 되가는 나이임에도 실력이 있으니 쓴다. 송승준(36), 정대현(38), 강영식(35), 이명우(34) 등도 시즌을 치르며 느꼈을 것이다. '이름값이 아니라 실력으로 보여달라'고 주문한다. 롯데는 4년간 실패했다. 팬들께 죄송하다. 성적으로 보여줘야 팬들도 호응하실 것이다."

김영준 기자 gatzby@donga.com

"돈 욕심 없다" '멘탈갑'으로 성장한 김하성

데뷔 4년차에 2억2000만원 연봉 대박
"일희일비 않고 묵묵히 나아갈 것" 의연

김하성

설정한 목표를 하나씩 이뤄나간다는 것은 소중한 일이다. 목표점에 다다르면 그만한 보상도 따라온다. 넥센 유격수 김하성(21)은 그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강정호(29·피츠버그)가 떠난 넥센의 주전 유격수 자리를 메운다는 것은 가혹한 일이었다. 게다가 강정호가 KBO리그 마지막 시즌인 2014년 117경기에서 타율 0.356, 40홈런, 117타점으로 생애 최고 성적을 찍은 터였다. 그 어려운 자리에 들어간 김하성은 140경기에서 타율 0.290, 19홈런, 73타점을 기록하며 우려를 기우로 바꿨다. 풀타임 첫해인 데다 수비부담이 큰 유격수로서 자기 역할 이상을 했다.

신인왕과 유격수 부문 골든글러브를 놓친 데다(투표결과 2위), 20홈런-20도루에 이르지 못했지만, 이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김하성은 잠재력을 마음껏 뽐냈고, 넥센은 든든한 주전 유격수를 얻었다. 올 시즌 주저 없이 1억6000만원의 연봉을 안겨준 이유다. 지난해 4000만원에서 무려 1억3000만원 오른 거액이다.

2015시즌 알을 깨는 아픔 속에 성장했다면, 올해는 팀의 기둥으로 올라서는 단계였다. 올 시즌 전 경기(144경기)에 출장해 타율 0.281, 20홈런, 84타점, 28도루를 기록했다. 지난해 20홈런-20도루에 실패한 아쉬움을 모두 날렸다. 8월 23경기에서 타율 0.163의 극심한 슬럼프를 겪은 것도 성장을 위한 밑거름이었다. 꾸준한 경기 출장을 통해 슬럼프를 극복하는 법을 깨달았고, 그 과정에서 전 경기에 출장한 유격수라는 훈장도 따라왔다. 기량은 업그레이드됐고, 멘탈(정신력)도 더욱 강해졌다.

그 결과 2017시즌 2억2000만원의 고액연봉을 받는 선수로 거듭났다. 데뷔 4년째에 2억원대 연봉을 거머쥔 것은 구단이 그의 능력치를 인정했다는 의미. 역대 넥센 4년차 야수 최고연봉이다. 넥센 구단 관계자는 "팀의 주축 선수들에게는 로열티가 있다"며 "우리 선수들이 타구단 선수들과 비교해 기죽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올해도 골든글러브 수상에 이르지 못했지만, 구단은 2억원대 연봉으로 김하성의 기를 살려줬다.

김하성은 의연했다. 연봉 대박을 터트린 기쁨을 뒤로하고 다시 스파이크 끈을 조였다. 그는 "항상 많이 신경 써준 구단에 감사할 뿐이다"면서도 "나는 아직 어리니 돈에는 큰 욕심이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일희일비하지 않고 묵묵히 앞만 보고 나아가겠다는 얘기였다. 실력에 멘탈까지 장착한 김하성의 목소리에 성숙함이 묻어났다.

"오직 내년 시즌에 어떻게 더 잘할까 고민하고 연구할 뿐이다. 더 큰 책임감을 갖고 날이 갈수록 모든 면에서 발전하는 선수가 되겠다."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

삼성, 차우찬 보상 선수로 이승현 지명

LG와 스토브리그 2대2 선수교환 마무리

이승현

삼성이 22일 프리에이전트(FA) 계약을 통해 LG로 이적한 차우찬(29)의 보상 선수로 우완투수 이승현(25)을 지명했다.

LG는 유망주가 많은 팀으로, 삼성이 LG의 보호선수 20명 이외에 어떤 선수를 지명할 것인지 관심이 높았다. 결국 이승현이 그 주인공으로 밝혀졌다.

이승현은 올 시즌 중반 양상문 감독이 "미래 마무리 후보가 될 수 있는 자원이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최고 시속 150km 안팎의 빠른 공을 던지는 투수지만 아직 제구력 등 보안해야 할 숙제도 많다. 다만 제구가 잡히고 계기를 잡는다면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10년 화순고를 졸업하고 당시 1차지명이 없던 신인 전면드래프트에서 2라운드 전체 16순위로 입단한 유망주 출신이다. 공익근무요원으로 병역을 마쳤고, 2015년 1군에 데뷔했다. 올 시즌엔 1군에서 38경기에 등판해 3승1패, 3홀드, 방어율 5.49를 기록했다. 41이닝 동안 46개의 안타를 맞았고 29삼진 23볼넷을 기록했다.

삼성이 이승현을 지명하면서 LG와 스토브리그에서 사실상 2명씩 선수를 교환하며 FA정면대결을 마쳤다. FA 우규민(31)과 이승현이 LG에서 삼성으로 이적했다. 반대로 삼성에서는 차우찬이 FA계약을 통해 LG 유니폼을 입었고, 우규민의 보상선수로 내야수와 외야수로 활용할 수 있는 멀티 플레이어 최재원(26)도 LG에 둥지를 틀었다.

과연 양 팀의 2대2 맞교환이 어떤 결과를 낼지 궁금하다. 그 결과는 적어도 3~4년은 지켜봐야할 듯하다.

이경호 기자 rush@donga.com

편집 | 고창일 기자 ico@donga.com

toto 스포츠토토

KGC 90점대-삼성 80점대 예상 1순위

농구토토 스페셜+ 25회차 중간 집계
올 시즌 맞대결선 삼성이 모두 승리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인 케이토토(대표 손준철)가 23일 펼쳐지는 2016~2017시즌 국내남자프로농구(KBL) KGC-삼성(1경기), 모비스-SK(2경기)를 대상으로 한 농구토토 스페셜+ 25회차 게임의 투표율을 중간 집계한 결과, KGC-삼성전에선 KGC 90점대-삼성 80점대 예상이 가장 높았다. 투표율을 살펴보면 홈팀 KGC는 90점대에 39.80%, 원정팀 서울삼성은 80점대에 41.77%의 투표율을 보였다.

농구토토 스페셜 25회차 투표율 중간 집계 (22일 오전 8시 현재)

	1~69	70~79	80~89	90~99	100~109	110 이상
안양KGC	1.14%	12.07%	36.66%	39.80%	9.35%	0.96%
서울삼성	1.42%	21.08%	41.77%	30.50%	4.61%	0.60%
모비스	4.62%	35.71%	43.75%	13.52%	1.90%	0.47%
서울SK	26.98%	40.31%	22.36%	8.08%	2.01%	0.23%

* 게임방식 : 2경기 최종 점수대 맞히기 * 발매마감 : 2016. 12. 23(금) 18시50분

선두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KGC는 16승5패로 선두에 올라있고, 그 뒤를 삼성이 1경기차로 쫓고 있다. KGC는 새로 영입하려고 했던 외국인선수 블레이클리의 계약 거부로 분위기가 어수선한 와중에도 이정현, 오세근, 사이먼 등 주전 선수들이 제 몫을 해준 덕분에 안정적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삼성도 21일 오리온을 84-79로 꺾고 2연패를 끊었다. 크레익의 기량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지만, 김태술-라틀리프 콤비는 여전히 위협적이다. 최근 10경기 평균득점에선 KGC(94.0점)가 삼성(86.6점)보다 높지만, 올 시즌 1·2라운드 맞대결에선 모두 삼성이 승리했다는 점은 변수다.

모비스-SK전에선 모비스는 80점대(43.75%), SK는 70점대(40.31%)를 기록할 것이란 예상이 다수였다. 모비스는 최근 5경기 4승1패로 중위권에 진입했다. 양동근의 부상 결장에도 '잇몸농구'로 승률 5할 버티기에 들어갔다. SK의 경우 수비와 리바운드에서 제 몫을 해주던 최준용의 부상 이탈로 4연패에 빠지는 등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최근 5경기 평균득점도 68.0점으로 떨어지는 편이다. 시즌 상대전적은 1승1패로 팽팽하지만, 모비스의 강한 골밑 장악력과 홈경기라는 점은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서 벌어지는 각종 국제대회를 지원하기 위해 발행 중인 농구토토 스페셜+ 25회차는 23일 오후 6시50분 발매 마감되며, 자세한 일정은 스포츠토토 홈페이지 및 공식 온라인 발매 사이트 베트맨(www.betman.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7년 1월 6일 0시부터 스포츠토토 일시 발매 중단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인 ㈜케이토토(대표 손준철)가 '발매 시스템 이전 통합'에 따른 일시 발매 중단에 들어간다.

케이토토는 "이번 일시 발매 중단은 체육진흥투표권 인터넷 발매 시스템을 투표권중앙전산센터로 이전 통합해 스포츠토토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더욱 안정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더욱 원활하고 쾌적한 환경으로 고객들을 찾아가겠다"고 밝혔다.

발매 중단 기간은 전국 6500여개 판매점의 경우 내년 1월 6일 0시부터 7일 오전 8시까지이며, 공식 인터넷 발매 사이트 베트맨(www.betman.co.kr)은 이보다 하루 늦은 8일 오전 8시부터 발매를 재개한다.

이 기간 중 전국 토토 판매점 및 베트맨의 토토 및 프로토 게임 발매와 환급·환불 등 모든 서비스가 이뤄지지 않으며, 발매 중단 시기 내 환급·환불 기간이 만료되는 상품은 해당 기한이 자동으로 3일씩 연장된다.

배구토토 매치 46회차 투표율 중간 집계 (22일 오전 8시 현재)

현대캐피탈 VS 우리카드

1~3세트 승리팀

승리팀	1세트	2세트	3세트
홈팀	74.12%	79.86%	71.42%
원정팀	25.87%	20.15%	28.57%

1~3세트 점수차

점수차	1세트	2세트	3세트
2	12.10%	19.29%	17.28%
3~4	44.46%	38.79%	31.50%
5~6	30.47%	26.04%	34.20%
7~8	11.39%	13.89%	12.31%
9+	1.57%	2.00%	4.70%

* 발매마감: 2016. 12. 23(금) 18시 50분 * 게임방식: 1~3세트 승리팀 및 세트별 점수차 맞히기 * 표기방식: (승리팀) 홈팀, 원정팀 (점수차) 2, 3~4, 5~6, 7~8, 9+(9점차 이상)

현대캐피탈, 우리카드에 압도적 우세

배구토토 매치 46회차 중간 집계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인 케이토토(www.ktoto.co.kr)가 23일 천안 유관순체육관에서 벌어지는 2016~2017시즌 국내 프로배구 V리그 남자부 현대캐피탈-우리카드전을 대상으로 한 배구토토 매치 46회차 게임의 투표율을 중간 집계한 결과, 참가자들은 홈팀 현대캐피탈의 승리를 점쳤다.

세트별 예상 승리팀은 1세트부터 3세트까지 모두 현대캐피탈로 나타났다. 자세한 투표율을 살펴보면 1세트에는 74.12%, 2세트에는 79.86%, 3세트에는 71.42%로 모두 현대캐피탈이 압도했다. 세트별 예상 점수차에선 1세트와 2세트의 경우 3~4점이 각각 44.46%와 38.79%로 가장 높게 집계됐고, 3세트에는 5~6점(34.20%)이 1순위를 차지했다.

케이토토 관계자는 "국내 배구팬들은 현대캐피탈과 우리카드의 경기에서 선두 현대캐피탈의 완승을 예상했다"며 "문성민과 톤의 맹활약 속에 연승행진을 벌이고 있는 현대캐피탈이 전력상 우리카드에 앞서있다는 평가지만, 파다르와 최홍석 등을 중심으로 파란을 일으키고 있는 우리카드의 상승세 또한 고려해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배구토토 매치 46회차는 23일 오후 6시50분 발매 마감된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토토/프로토) 이외 모든 유사 스포츠베팅 행위는 '불법스포츠도박'이며, 이를 이용할 시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에 의거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클린스포츠 통합콜센터 [불법신고] 1899-1119
www.cleansports.or.kr
공식발매사이트 www.betman.co.kr